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2022 여름 제29호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Magazine

학교흡연예방 이모티콘 공모전





살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2022 여름 제29호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Magazine

Cover story



발행일 2022년 6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편집인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기획 및 편집 길기호, 정다운, 김영성
사진 변상호, 이주한, 서주희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표지사진 학교흡연예방 이모티콘 공모전 고등부 대상
홈페이지 www.ice.go.kr
디자인 · 인쇄 삼정인쇄(T. 032-773-3402)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2022-0110

제호 서체작가 꽃비 고천성
전화 032-320-0082

특집

- 04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 편성 안내
- 06 학교생활기록부, 배움-성장-역사를 담다
- 10 사진으로 보는 부부의 세계
- 12 교육 회복?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하나요?

캠페인

- 14 평화의 벚,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개원
- 16 폭력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요
- 19 학생이 만든 이모티콘으로 학생 흡연 예방
- 22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학교돋보기

- 26 동아시아시민교육의 중심, 인천별빛초등학교
- 28 학교,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든 어린이날
- 30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알아본다
- 32 상상을 현실로, 불가능을 기능으로 만드는 메타버스

공감

- 34 인하공업전문대학과 함께하는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 36 그 동안 교실 속 대화, 어떠셨어요?

정보

- 39 힘찬이와 자람이 웹툰(인천시교육청 SNS 채널 소개편)
- 40 학부모와 소통하는 고민 상담만화(한글공부 집에서 함께 하기)
- 44 교육제증명 우편 발급 서비스 전면 확대 실시
- 45 인천시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 이용 안내
- 46 인천교육소식지 7월 이벤트
- 47 인천광역시교육청 sns 소개

인천교육소식지 바로보기



독자 여러분의 제안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인천교육소식(tinylife@ice.go.kr)"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선정해 소개해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ice.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기사,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는 금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5조 273억원 편성

1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회복 지원 1,173억



2 꿈이 자라는 진로·진학·직업교육 511억



3 휴먼디지털 미래교육 1,906억



4 친환경 기후 생태 해양교육 66억



5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동아시아시민교육 254억



6 같은 출발선과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무상교육 실현 5,595억



7 학교 시설 여건 개선 사업 등 미래교육 기반 구축 6,417억



8 학교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3,366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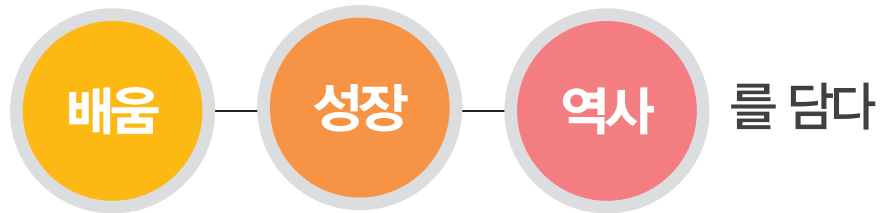
9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교육, 주민 참여 예산 사업 24억



10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기타 경직성 경비 편성 3조961억



학교생활기록부,



최은정 | 중등교육과 장학사

학교생활기록부, 너의 이름은?

이제 6월, 점점 뜨거워지는 태양처럼 고3도 돌아온다. 학생들은 활동내용 하나라도 더 추가하기 위해, 교사들은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이야기이다.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이전 학년도 기재 내용 중 오류가 있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찾아 절차에 따라 정정해야 한다. 입시와 직결되니,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사실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이나 취업에만 활용하는 자료는 아니다.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인성 등을 평소에 관찰·평가하여 누가, 종합기록함으로써 학생지도에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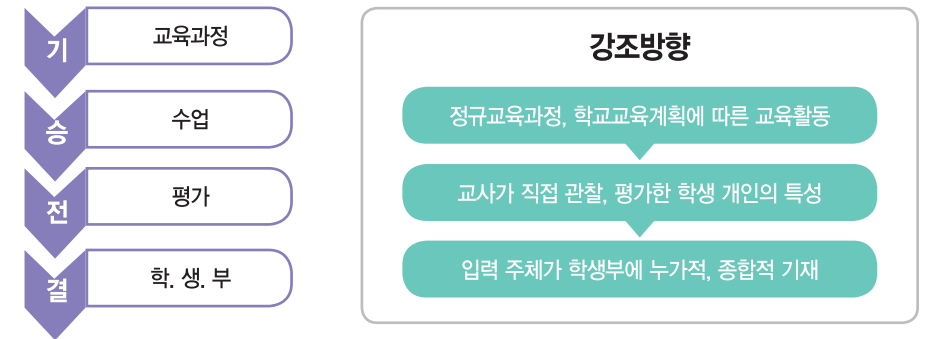
즉, 학생의 학교생활과 성장을 담아내는 ‘종합 성장 보고서’인 것이다. 성장 보고서이지만, 마냥 자유롭거나 가볍지는 않다. 근거 법령에 따라 기재, 관리되고 준영구로 보존되는 법정 장부이기 때문이다. 준영구? 거의 영구라고 보면 된다.

1952~1975년도에는 교육법 시행령에 학적부를 명시하였고, 그 이후에 생활기록부도 병기되었다. 그러다가 1998년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생활기록으로 명기되었다. 우리가 흔히 약칭으로 ‘생기부’라고 말하는데, 앞으로는 ‘학생부’로 부르기를 권장하고 싶다. 왜? 한때는 학교 안팎의 모든 활동들을 기재하면서 스펙 쌓기 경쟁에 숨 막혔지만, 최근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기록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유기적으로 구현된 최종 산출물로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그리고,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제한하기 위해 교외대회 참여 사실이나 교외상, 논문 발표나 도서출간 사실, 해외 활동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이나 기관명 등은 기재를 금지하고 있다. 항목과 관련이 없는 내용, 과장·허위·중복 기재 등도 금지이다.

한편,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입력하는 ‘학생부 대필’,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당하게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또는 수정,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니 주의해야 한다.

단위학교와 교육청,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의 책무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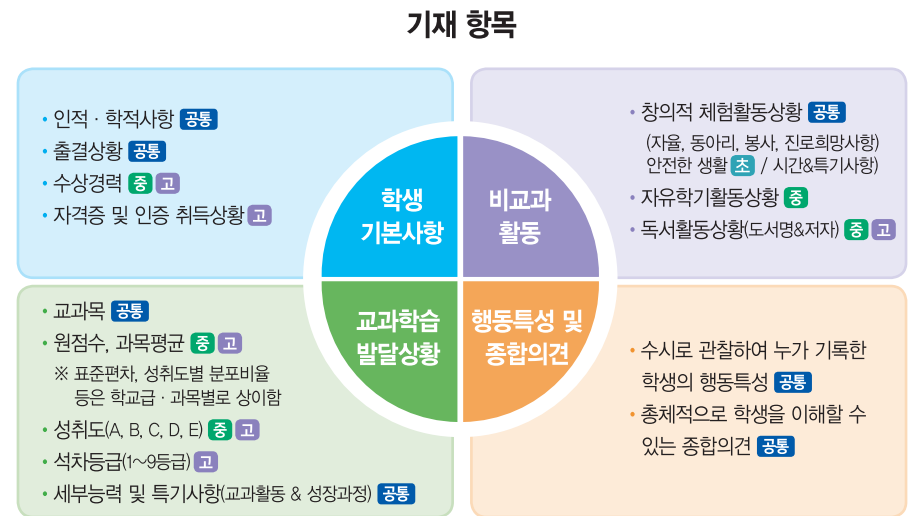
- 사교육 유발요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대학명·기관명 등 제한
- 학생 개별적 특성 드러나는 활동내용 기재(단순 나열 지양, 세특 강화)
- 학생부 대필(셀프 학생부), 기재 및 수정·정정 관련 부당 요구 금지
- 부당정정(이전 학년도 학생부를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정정 등) 금지
- 정정 절차(학업성적관리위 심의, 정정대장 결재, 4단 결재 등) 준수
- 입력 및 정정 권한의 정당한 부여,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 근거로 기재
- 항목과 관련 없는 내용, 기재금지 내용, 과장, 허위, 중복 기재 등 금지



대입전형에 반영되는 항목, 이렇게 바뀌어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에 반영되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항목이나 내용이 더욱 축소된다. 전반적으로 학교교육계획, 정규교육 과정에 따른 활동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학교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평가-기록을 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은 정규교육과정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여 본인의 역량과 성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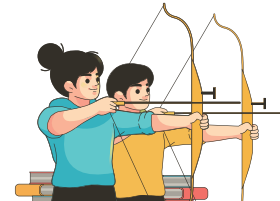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에 따른 주요항목 내 변경사항]

구분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2023학년도 대입 (2022학년도 고3)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2024~2025학년도 대입 (2022학년도 고1~고2)
교과활동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비교과 활동	- 동아리 활동 -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30자)만 기재 -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 봉사활동 - 특기사항 미기재 -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 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학교’)로 등록)은 대입 반영
	- 진로활동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수상경력 -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3년간 6건) 대입 반영 - 수시 최대 5개, 정시 최대 6개	대입 미반영
	-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 대입 미반영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수사항은 제공)	대입 미반영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수사항은 제공)
	- 독서활동 - 도서명과 저자	대입 미반영

출처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생활기록부가 궁금할 땐, 여기서~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점검할 때 해당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근거로 해야 한다.

그런데 책자도 파일도 없다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것을 알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면?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https://star.moe.go.kr/>)”에 들어가 보자.

역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파일은 물론 전자책, 설명 영상, 관련 법령, 참고자료, 상담 사례, 정책 방향 등이 정리되어 있고, 개별적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Q&A도 운영하고 있다.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교사는 수업과 평가, 생활교육, 행정업무와 더불어 오늘도 뜻밖의 상황을 선사(?) 하는 아이들과의 다사다난한 일과에 무척이나 바쁘다. 그래도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과 즐겁게 소통할 때 자신감과 충만감을 느낀다.

학생들은 날마다, 해마다 성장한다. 모든 학생은 저마다의 강점과 능력이 있다. 때론 그것을 본인이 깨닫지 못하거나, 교사가 발견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믿자! 아이들 100명이 있다면, 100가지 이상의 빛깔과 꿈이 있다고.

그리고 그 빛과 길이 뻗어나가는 과정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담아 보자. 학생들은 영원히 남을, 자신의 배움과 성장 일지를 채운다는 열정으로! 교사들은 다채롭고 생생한 역사(歷史)를 기록하는 사관(史官)의 마음으로!



사진으로 보는 부부의 세계



신흥초등학교 류근성 교감선생님과 초은고등학교 윤혜옥 행정실장님은 인천시교육청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있는 인천교육가족인 동시에 부부로써 사진을 취미로 즐기는 가족이기도 하다.

작년 10월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에서 사진으로 보는 부부의 세계 전시회를 개최하고, 인천교육소식지 2021년 겨울호와 2022년 봄호 메인 표지를 장식해 주었다.

지금부터 류근성, 윤혜옥 인천교육가족을 만나보도록 하자.



류근성 교감선생님과
윤혜옥 행정실장님 인터뷰

Q.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30여년 교직에 있고 약 20여년간 풍경사진을 찍고 있는 신흥초등학교 교감 류근성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사진 위주로 찍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풍경사진을 주로 찍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을 중요시 여기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교행인으로 30여년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사진과 독서입니다. 사진을 찍으며 다양한 삶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사진 인문학을 지향합니다.

Q. 류근성 교감선생님은 사진을 찍으면서 뿌듯했던 적은 언제인지?



누군가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제가 같이한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가령 결혼식, 아기 돌잔치, 정년퇴임식, 학교 학생들 표창받을 때 등의 모습을 찍어서 사진을 넘겨줄 때요.

답임을 할 때 일 년 동안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사진을 찍어 학기 말에 개인앨범을 만들어서 나눠줄 때 학생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김영상 | 소통협력담당관 주무관



류근성_벚개다



윤혜옥_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Q. 윤혜옥 실장님은 사진과 시를 같이 게시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사진을 찍은 작가의 의도를 시와 함께 표현하면 보시는 분들이 작품을 쉽고 편하게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상은 보는이들 마다의 자유로운 영역이라 오히려 다양한 해석에 제한을 두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방식이 좋습니다.

Q. 부부가 취미가 같으면 어떤점이 좋나요?



어떤 일을 부부가 함께 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의 삶의 기호에 무관심해 질 수 있는데, 우리는 관심이 같고, 함께 한다는 거죠. 저는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좋고 퇴직 후에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함께 이야기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통소재가 있다는 것이 가장 좋죠. 서로에 대한 이해도 더 하게 되고요. 사진이라는 커다란 공통분모는 같지만 취향은 서로 달라요. 다르기에 서로 자극이 되고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 그런 점이 좋아요.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일단 계속 사진을 찍을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사진에세이를 출간하고 싶고, 책을 읽고 토론하듯이 사진을 보면서 사진토론도 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진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계속 모색하고 있어요.



계속 풍경 사진을 찍을 예정이고, 단순한 풍경이 아닌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사진을 찍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사진 인문학 활동에 적극 외조할 생각입니다.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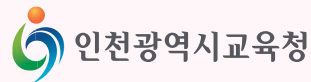
작품 감상은 여기서!!



류근성 교감선생님
<https://blog.naver.com/civilcat>(블로그), [imryusam](https://www.instagram.com/imryusam)(인스타그램)



윤혜옥 행정실장님
<https://blog.naver.com/hoyoon7>(블로그), [hoyoon7](https://www.instagram.com/hoyoon7)(인스타그램)



교육 회복?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민희 | 정책기획조정관 주무관



QR코드를
인식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icehongbo/222771353011>

우리교육청의 교육회복 ② 기초부터 진로 교육까지 학습결손 해소



인천광역시교육청

우리교육청의 교육회복 ③ 건강한 몸과 마음의 회복



인천광역시교육청

우리교육청의 교육회복 ④ 모든 학생을 위한 세심한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우리교육청의 교육회복 ⑤ 꿈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의 벚,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개원

남경화 |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장학사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강화군 교동도에 있는 평화교육 기관입니다.

교동도는 ‘평화의 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강하구 중립 수역에 있는 교동도는 단절과 대립을 넘어 연결과 공존을 체험할 수 있는 평화교육 최적의 장소입니다. 교동도에는 다양한 유무형의 평화교육 자원이 있습니다. 분단 1세대 실향민이 거주하고 있고, 실향민의 애환이 담긴 대룡시장과 망향대 외에도 남과 북의 시각 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훈맹정음을 창안한 박두성 생가도 있습니다. 철책선을 따라 걸으며 철새를 탐조하고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생각할 수 있는 난정저수지도 있습니다.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2019년 12월 폐교된 난정초 부지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8월에 공모를 거쳐 ‘평화의 벚,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까지 건축 설계를 마치고 2021년 12월에 건축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교육동과 생활동, 휴게 공간인 북카페와 야외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구 난정초 교사를 리모델링한 교육동과 북카페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신축하는 생활동은 2023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교육동은 2층 건물로 1층은 4개의 관으로 구성된 전시관이 있습니다. ‘모두의 평화’를 주제로 평화예술작품과 평화 전시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와 관련 체험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은 실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실과 다목적실이



설립추진위원회(2021.4.9.)



있습니다. 생활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1층의 원형 강당에서는 평화교육과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3층에는 1일 최대 약 130여 명이 숙박할 수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의 설립을 위해 인천의 여러 기관이 협업하였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청, 평화 통일 관계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청과 인천문화재단이 전시관(1~3관) 구축하였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동도 평화교육자원 기초조사는 인천연구원이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도시공사와 사단법인 평화의 숲이 함께 교육동 뒤에 평화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전시관(4관) 구축 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이 전시관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였습니다.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의 평화교육은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였습니다. 과거 전쟁과 분단의 경험을 토대로 남북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 현재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교육, 미래 평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평화교육 허브 기관이 되어 평화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평화 교육기관(단체)을 연계하여 평화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남북접경지 교육청과 연합하여 평화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평화교육 단체를 연계하여 평화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평화교육을 연구하고 예술을 활용한 평화교육 프로그램, 비대면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학교 평화교육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022년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운영합니다. 평화교육은 1일 체험 형태로 진행됩니다. 교동도의 평화교육 자원을 활용한 현장 체험활동과 실내 체험활동, 전시관 탐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5~6시간이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실내 체험활동과 현장 체험활동으로 구성된 ‘격강천리: 평화의 메아리’, ‘워(war) 워(war) 멈춰’가 있고, 현장 체험활동 중심으로 구성된 ‘걸어서 평화 속으로’, ‘나는 평화의 씨앗’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교육 대상에 따라 시기와 날씨 등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운영합니다.

체험과 실천 중심의 평화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인천난정평화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변화하는 국내외 사회상에 맞추어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살아갈 시민을 양성하는 대표적인 평화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망향대



난정저수지 철책선

폭력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요.

고윤경 |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최근 상연된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영화나 OTT를 보면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오래도록 트라우마로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역시 과거 학교폭력 이력으로 연예계나 운동계에서 퇴출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최근 발행하는 양상을 보면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사전 감지가 어려운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의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과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는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들의 삶에 스며들어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합니다. 국가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프로그램'과 '사이버어울림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든 학급, 모든 교과에서 연간 8차시 이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깨동무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울림프로그램 교원연수 △학부모 연수 △학교폭력예방교육 컨설팅 △어울림나눔학교 △학급 중심 학교폭력 예방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경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울림프로그램 현장지원단 16명을 조직하여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가이드 및 수업사례집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교, 학년, 전학공 등을 대상으로 '같이가치 어울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 아이 마음 읽기 학부모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 아이 마음 읽기 학부모 연수'의 1부는 꿈키움 We센터 이유미 센터장님의 강의, 2부는

자녀와 함께 미니정원 만들기로 진행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라는 영화 관람 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회(학사연)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확산과 공유를 위해 어울림 나눔학교 30교(초15, 중12, 고3)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혁신운영제 자율선택제 사업으로 학급중심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선생님들을 지원하고자 컨설팅단 20명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의 수업경감을 지원하여 내실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참여·체험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확대합니다.

학생 자치회, 동아리, 학급 등이 중심이 되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어깨동무활동 △학교로 찾아가는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학생서포터즈단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을 운영합니다.

어깨동무활동은 학생 주도의 토래활동, 언어문화개선 활동,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관계중심 생활교육 등으로 어울림·사이버어울림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참여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을 지원합니다. 2022년에는 인천새말초등학교와 산곡여자중학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욱 알찬 학생 중심 활동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교육으로 학생들의 감수성 신장을 지원합니다. 뮤지컬, 샌드아트, 참여연극 등 학교급별로 소재와 수준을 구성하여 예술과 함께 스며드는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유형·추세 대응 예방활동을 실시합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의 유형 및 신종 학교폭력 발생 추세에 대응하기 '어울림 나눔주간'을 운영합니다. 어울림 나눔주간은 분기별로 3월, 6월, 7월 실시합니다. 어울림 나눔주간1은 3월 학기초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친구가 어려울 때 방관하지 않고 방어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합니다. 학교에 방어자에 소개 내용을 담고 있는 파일을 지원

하고 다양한 집단따돌림 예방 교육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어울림 나눔주간2는 6월 사이버폭력 예방 주간을 운영합니다. 신종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와 연계하여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하며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안내합니다.
어울림 나눔주간3은 9월 언어폭력 예방 주간을 운영합니다. 온-오프라인에서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위해 언어실천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선플달기, 언어문화 개선 웹툰, UCC, 수업 사례 공모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를 조성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의 노력만으로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천 경찰청, 법무부, 굿네이버스 등 유관기관과 학교폭력 예방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공연을 연계하며 학교 전담경찰관(SPO)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같이가치 꽃길 걷기', '같이가치 단풍길 걷기'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특히 2022년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 앱'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였고, 지금까지 대략 3,6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를 공유하고 함께 걸으며 학교폭력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자료실
(학부모) 학부모On누리 (www.parents.go.kr)
(교 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http://stopbullying.re.kr>)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예방'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학교 흡연예방 이모티콘 공모전 개최

— 인천의 시그니처 학교 흡연예방사업 : 학생이 만든 이모티콘으로 학생 흡연 예방 —



박경숙 | 체육건강교육과 주무관

◎ 공모전 기획 의도

• SNS는 흡연 예방 및 금연을 홍보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

- 학교 흡연예방 사업의 주요 타겟은? 학생
- 학생들이 매일 접근하는 매체는? 스마트폰
- 학생들이 흡연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또래 집단 영향(흡연하는 친구의 영향)
- 학생들이 또래집단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주된 방법은? SNS

→ 학생들에게 흡연예방을 홍보하기 가장 효과적인 매체는 SNS라는데서 착안하여 이모티콘 공모전 개최

• 인천광역시교육청만의 차별화된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프로그램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교육은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모티콘은 학생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우리 교육청은 학생이 직접 만든 캐릭터를 이모티콘으로 제작함으로써 흡연예방과 금연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흡연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흡연에 대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사업을 추진함.

◎ 공모전 개최

- (참가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초 · 중 · 고 · 특수 · 각종학교 학생
- (공모기간) 2022. 5. 2.(월) ~ 2022. 5.20.(금)(3주간)
- (시상내역) 15개 작품(초 · 중 · 고 각 5개 작품 시상, 상품 및 상장)
- (훈 격) 인천광역시교육감

◎ 공모전 결과

- (출품작) 총 77개 작품
- (입상작)

입상 분야	학교명	학년	작품명
초등	대상	인천백석초등학교	노달이
	최우수	경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파농이와 함께하는 금연 캠페인
	우수	길상초등학교	왕왕이와 함께 담배를 피지 말자!
		인천가좌초등학교	구름이는 금연을 원해
		인천연화초등학교	도깨비 담배는 나빠
중등	대상	간재울중학교	시바와 함께 노담
	최우수	부원중학교	집사 금연을 동조하는 친구들
	우수	부원여자중학교	금연이의 소중한 응원
		인천하늘중학교	금연마스코트(그머니)의 금연 응원
		인성여자중학교	다노새의 단호한 거절
고등	대상	학익여자고등학교	호랑이도 금연한다
	최우수	강화여자고등학교	숲 속 동물들의 금연이야기
	우수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고양이는 담배를 시러해~
		인천해원고등학교	계범이도 이제 담배 안 씹니다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금연 생쥐맨

◎ 대상 작품 설명



2022학교 흡연예방 이모티콘 공모전 입상 예정작

초등 대상 백석초

제목 : 노달이
작품설명 : '노담'과 '달콤'을 합쳐 '노달이'로 이름을 정했고, 사과(Apple)는 달콤하지만 사과(Apology)의 뜻도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서 미안하지만 앞으로 달콤하게 배려해 주겠다'는 의미를 담아 작품 제작

중등 대상 간재울중

제목 : 시바와 함께 노담
작품설명 : 입상자가 가장 좋아하는 강아지 '시바'를 캐릭터로 이모티콘 제작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청소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로 제작

고등 대상 학익여고

제목 : 호랑이도 금연한다
작품설명 : 2022년이 호랑이의 해이기도 하고 옛날 옛적 담배피던 호랑이가 지금은 담배를 피지 않는 상황을 설정하여 우리도 금연을 해야하지 않겠냐는 아이디어에 착안해 캐릭터 설정, 주위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모티콘의 그림체가 허술하거나 단순한 이모티콘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심플하게 제작

2022학교 흡연예방 이모티콘 공모전 입상 예정작



초등 최우수 경인교육대학교 부설초



중등 최우수 부원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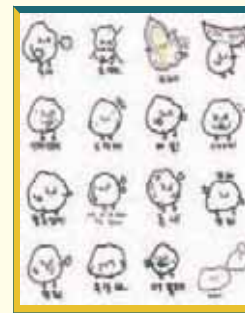
고등 최우수 강화여고



고등 우수 생활과학고



중등 우수 부원여중



초등 우수 가좌초



고등 우수 인천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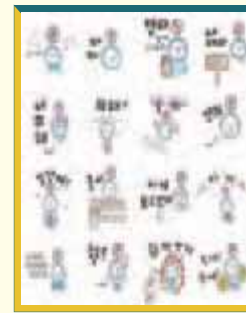
중등 우수 인성여중



초등 우수 연화초



고등 우수 해원고



중등 우수 하늘중



◎ 기대효과

우리 교육청은 학교 흡연예방 이모티콘 공모전 입상작 중 한 개의 작품을 SNS 이모티콘으로 제작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료 배포할 계획임.
인천 관내의 학생이 직접 만든 이모티콘을 학생들이 사용함으로써 흡연예방 및 금연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학부모에게도 이모티콘을 무료 제공함으로써 담배, 흡연 예방, 금연 등의 주제를 자녀와 가볍게 얘기를 나누거나,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울 경우 이모티콘을 사용해 금연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책으로 이어지는 도시 책으로 하나되는 인천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형남정 | 미래학교혁신과 주무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을 동네방네 책 읽는 소리가 넘치는 인문학 도시로 만들기 위해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도서관, 지역사회 등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독서 진흥 사업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인천시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독서생태계 조성과 지역서점 살리기를 위한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으로 학교-지역서점이 협력하여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동네책방 탐방교실’, 지역서점-공공·학교·작은도서관-교육지원청이 상호연계한 ‘책동네산책 프로젝트’, ‘배다리 책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거리 축제’는 독서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즐겁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독서사업입니다.



동네책방 탐방교실

최근 사라져가는 지역서점 살리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저조해진 학생들의 독서체험

초, 중, 고등학교 동아리나 학급, 학년전체 단위로 운영되는 「동네책방 탐방교실」은 학생들이 집이나 학교와 가까운 동네책방을 직접 방문하여 책을 구입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신설된 사업으로 초, 중, 고 100팀에서 2022년에는 200팀으로 확대하여 창체 활동과 교실 밖 체험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책을 고르는 체험을 통해 그동안 부모님과 선생님이 골라준 책을 읽던 학생들이 도서선택 및 책 읽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서효과는 두배가 됩니다. 대형 온라인 서점의 증가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동네책방의 경영악화와 폐업 등 존폐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하기 위해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도 살리는 일거양득의 독서문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공모사업 혁신운영제 사업으로 초등 57교 136팀, 중학교 27교 28팀, 고등학교 23교 36팀, 총107교 200팀에 팀당 운영비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동네책방 나들이▲책소개 광고물 제작하기▲우리동네 마을지도 만들기▲함께 온책 읽기▲가족과 동네책방 탐방하기 등입니다.

「동네책방 탐방교실」을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는 물론 대형 온라인서점의 당일 배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동네 책방이지만 학생들이 책을 접하는 다양한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독서문화를 공유하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예송초-북카페 방문



광성고-동네책방 탐방



광성고-책소개 광고물 제작



구산중-가족독서



구산중-동네서점 지도 제작



책동네산책 프로젝트

지역독서공동체간 협력으로 시민이 다함께 독서를 즐기는 책 맛집!

지역서점-공공도서관-교육지원청이 연계 협력하여 기존 도서관에서 운영되었던 독서관련 행사나 독서동아리 활동을 마을의 지역서점과 문화공간으로 확대한 독서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북구, 서구도서관과 남부, 서부교육지원청이 「책동네산책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관당 운영비 5백만원을 지원하여 책을 매개로 하는 지역서점이나 작은도서관, 독서문화공간 등을 여행하듯 둘러보고 체험하는 독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작가와의 만남▲심야책방▲북토크▲독서모임▲독립출판 체험 등으로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운영하는 지역서점에서 내가 즐기고 싶은 가치 있는 독서 체험을 골라 경험할 수 있으며 배움의 공간을 마을로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관별 사업의 자세한 내용 및 일정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북구도서관 공유서가



서구도서관 스탬프 투어



남부교육지원청-아무튼 완성 미추홀프로그램

기관별 「책동네산책 프로젝트」 주요프로그램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

- 서점지기와 책 읽기 및 공유서가
 - 부평 지역서점 대표와 작은도서관 활동가와 함께하는 독서모임
 - 책을 추천하고 전시하는 북큐레이션 운영
- 원작이 있는 마을 음악회
 - 문학과 음악의 만남, 레미제라블 원작을 함께 읽고 마을음악회 공연
- 지역서점과 작은도서관을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명랑책길 산책노트 배포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 소, 책, 행 스탬프 투어
 - 서구, 강화군 소재 지역서점, 도서관 탐방 스탬프 투어행사
- 지역서점, 작은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아무튼 완성 미추홀 그림책
 - 그림책 작가와 함께 책동네 산책, 마을 그림책 제작 연수
- 마을탐방 프로그램
 - 남부 관내 초·중학교 새내기교사와 함께하는 우리 학급 마을 탐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책과 소통, 섬을 위한 서부 동네 책방 인문학 교실
 - 계양구, 서구지역의 지역서점에서 작가초청 인문학 강연
- 북트레킹, 책과 함께하는 서부 구석구석 마을 여행
 - 근대문학관, 박물관 등 지역의 문화공간 탐방



배다리 책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거리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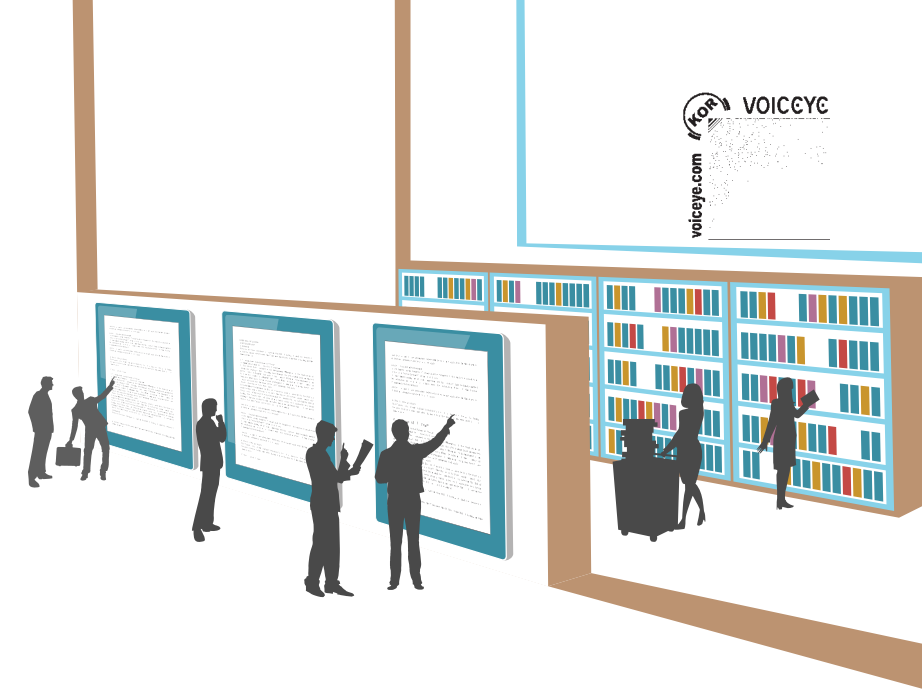
책과 사람을 잇는 현책방거리에서 나만의 새로운 인생 책 찾기

동구 초·중·고 및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지역 현장 중심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배다리 책문화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배다리 책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거리 축제」는 화도진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관련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여 책 읽는 마을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독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배다리에서 듣다 시인과 작가」프로그램 ▲「배다리에서 만나다_독립서점」프로그램 ▲「배다리를 즐기다_탐방&체험」프로그램을 온라인과 대면 방법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개인 소장도서 교환을 통한 일일화폐 축제 ▲배다리 현책방거리를 포함한 동구 일대 지역의 역사와 문화 탐방 투어 등을 운영합니다.

이처럼 지역서점 및 기관들과의 협력과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의 애정으로 배다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책방거리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고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배다리의 현책방 골목이 책 문화를 즐기려는 학생,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기대해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서부동네책방 인문학



배다리에서 듣다-시인과 작가 : 김해자 시인과의 만남



배다리 현책방 탐방&체험 프로그램

인천별빛초,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중심이 되다

SINCE
2022



이효진 | 인천별빛초등학교 교사

인천별빛초등학교(교장 변종국)는 영종국제도시에 개교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 학교입니다. 주소는 ‘은하수’로 402, 이름은 ‘별빛’초. 굉장히 낭만적입니다만 하늘도시의 아파트 숲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 밤에는 건물과 자동차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학교입니다.

태양계의 행성에 박식하고 유튜브로 우주를 보여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아이들이지만 정작 밤하늘의 별을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 시작하게 된 것이 ‘동아시아시민교육’ 프로젝트입니다.

인천별빛초등학교는 2022학년도 「동아시아시민학교」입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은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역점정책 및 사업으로서, 갈등과 분쟁의 동아시아를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로 전환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 따르고 동아시아를 한국과 세계의 연결고리로서 세계시민교육의 무대로 활용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동아시아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2년 유네스코협력학교이기도 한 인천별빛초등학교는 우수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4학년을 대상으로 다국어 강사와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중국어 및 일본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별빛초등학교의 다국어 교육은 단순한 외국어 교육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연계한 세계시민교육입니다. 무작정 일본어 인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주거 문화를 이해하고 방문 인사를 배우도록 합니다. 중국의 자녀 정책과 관련한 가족 문화를 배우고 호칭 표현을 익힙니다. 단오절 동요를 함께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단순한 문화 체험의 차원이 아니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와 평등하게 어울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활교육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3-4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동아시아이해교육 및 역사·평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국어교육과 연계하여 동아시아를 이해하고 역사·평화교육까지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흐름입니다. 매월 주기적으로 3-4차시의 교과 연계 주제별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고, 그 주제는 지속가능발전 테마에서 선정합니다.

22년 3월에는 ‘지구의 시간’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온책읽기의 일환으로 「지구를 위한 한시간(박주연, 한솔수북)」 그림책을 다같이 읽었습니다. 학교 곳곳에 배치된 포스터 속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불러 들어 동영상도 시청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3학년은 일본의 대표적인 동물인 원숭이 모양의 양초를, 중국어를 배우는 4학년은 중국의 대표적인 동물인 판다 모양의 양초를 만들었습니다. 그 양초로 3월 26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어스아워」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3-4학년에 국한하여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3월에 새롭게 선출된 인천별빛초등학교 학생회가 전교생과 아침맞이 인사를 할 겸 등교 시간을 이용하여 정문과 2개의 후문 앞에서 각각 포스터를 들고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교생은 참가 서약서를 작성하고, 미니캔들을 1개씩 수령하여 가정에서 각자 행사에 참여한 뒤 학급 어플에 인증샷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교생의 인증샷을 모아 사진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어 본관 1층 게시판에 전시하였습니다. 4월은 ‘미세먼지와 방사능’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 및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3-4학년은 재구성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주제 관련 AR 및 레고 체험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국제학교들과 역사·평화교육 차원의 문화적 교류를 추진합니다. 21학년도에는 중국과 대만의 국제학교에 독도 티셔츠를 제작하여 선물을 보낸 바 있습니다. 올해는 독도 교육을 실시하고, 독도 모양의 비누와 엽서를 적어 선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어스아워 행사를 진행하면서 학생이 제작한 포스터 속에 ‘불을 꺼 주세요, 별을 볼 수 있게’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은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어딘가를 마음 먹고 가야 별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집 앞에서도 별을 볼 수 있는 세상을 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동아시아시민이 되도록 인천별빛초등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열정을 다 해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전개합니다.



학교,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어린이날

유철민 | 인천산곡북초등학교 교사

올해(2022년)는 어린이날 100주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는 많이 움츠러들었고 다양한 교육 행사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날도 예외가 아니었기에, 2년 동안 대면 행사를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의미만 가지고 어린이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이날이 주는 의미가 생일만큼이나 컸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인천산곡북초등학교(교장 함복자)에서는 잃어버렸던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찾고,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 모두가 참여하고 행복한 행사를 준비한다. 둘째,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어린이날 행사를 마련한다. 셋째, 학부모회에서 학부모님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각 교육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맡았습니다.

먼저 각 학년의 학급에서는 ‘나의 미래 꿈’을 주제로 특색있는 전시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꿈 소개, 미래 나의 모습 그리기, 책 속 꿈 보물찾기 등 다양한 주제로 만든 작품들은 5월 2일(월)부터 5월 4일(목)까지 학교 운동장과 복도에서 전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만든 작품을 보며 다른 사람의 꿈을 응원해주었습니다. 학생자치회 임원들은 날짜를 정하여 자발적으로 전시회 작품 설치하기, 작품 수거하기, 점심시간에 작품 관리하기 등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학부모회



산곡북초등학교만의 L자 파일

학생자치회에서는 임원들을 중심으로 각 반의 학급 회의를 통해 ‘이런 어린이가 되겠습니다’라는 주제를 정하여 표어, 포스터, 그림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각 반의 작품들은 우리 인천산곡북초등학교만의 L자 파일로 만들었고, 학생자치회들은 어린이날 행사 당일 등굣길에 학생들에게 직접 배부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은 L자 파일의 작품을 보면서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로 자라도록 마음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회에서도 특별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였습니다. 학부모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손수 포장해주었고 ‘깡이 없는’ 뽑기 응모함을 제작하여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선물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탈을 준비하여 등굣길에 학생 맞이를 하였습니다. 학부모회의 특별한 이벤트로 화창한 아침 등굣길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미연 학부모회 회장은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다양한 교육 행사도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어린이날만큼이라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더욱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함복자 교장선생님은 “코로나19로 많은 학교와 학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듯이 오늘 행사도 학교, 학생, 학부모가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주체들이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며 행사의 의미를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몇 몇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간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속에서 방역 방침에 잘 따라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작은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5월의 아름답고 푸르른 봄 하늘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환하고 맑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배움과 꿈이 있는 곳,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알아본다

주유진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보통 한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이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는 어린 시절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사람들, 학습의 꿈을 못다 이룬 성인 학습자들이 한글 공부를 한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초등 1~3단계와 중학 1~3단계 과정을 배우고 익혀 학력인정서와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인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학력인정 문해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학력인정 문해교육이란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문해능력 향상을 도와 기초생활능력을 높이고, 초·중학교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는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중학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은 단계별 학습시간이 240시간으로 총 240시간 중 160시간을 수료하면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으며, 3단계 과정을 수료시 졸업장을 취득(학력인정)할 수 있다.

중학학력인정 문해교육의 단계별 학습시간은 450시간이며, 총 450시간 중 300시간을 수료하면 다음 단계로 진입, 3년 과정을 공부하여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12월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금년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10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중학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프로그램운동을 하였으며, 금년 2월에 제1회 중학과정 졸업생 8명을 배출하여 초등과 중학과정 졸업생을 배출한 인천 유일의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관이 되었다.

금년 졸업식은 졸업생들이 졸업가운과 학사모 외에 마스크를 착용하며 맞이하는 졸업식이 되었지만, 지난시간 이어간 학습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문해교육을 통하여 변화한 자신을 깨닫고, 자신감을 갖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문해교육 학습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는 수료 가능한 학습 시간이 부족하여 학력 미인정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는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수업



초등원예창의적체험수업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졸업식



중학장구창의적체험수업



중학학력인정 문해교육 졸업식



학력인정 문해교육 전시회

학력 인정 과정을 운영하였으나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수업을 디지털 기기를 통한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그로인해 고령의 학습자들은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학습 수행에 피로감이 생기게 되었고, 학습 부진이 우려되었다. 이에 평생 학습관에서는 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습자 개인별 디지털 기기 사용 방법 지도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원예, 장구, 전시회 준비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학습 대면 수업을 운영하여 학습자들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교육부에서 지정한 정규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성인 학습자의 실정에 맞는 문해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할 예정이다.

초등 1~3단계 과정에서는 국어, 수학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학 1~3단계 과정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뿐만 아니라 컴퓨터, 음악 등의 여러 교과도 함께 학습하게 되며, 시화전, 학습자로 전시회, 현장학습 등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학습자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여 삶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22년에는 정규 편성된 교육과정 외에 학습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글 기초교육, 맞춤법 익히기, 영어 기초교육 등 특별강좌를 기획하여 성인 학습자의 실정에 맞는 문해 교육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배움을 갈망하는 성인학습자들이 많이 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운영과정	지정·운영 기간	운영 단계
인천광역시 교육청 평생학습관	초등	2020. 3. 1. ~ 2024. 2. 28.	1~3단계 동시 운영
	중학	2022. 3. 1. ~ 2025. 2. 28.	
인천광역시 교육청 북구도서관	초등	2020. 3. 1. ~ 2024. 2. 28.	2단계
인천광역시 교육청 부평도서관			2단계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안도서관			2단계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앙도서관			2단계
인천광역시 교육청 계양도서관			2단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학습관			1~3단계 동시 운영



상상을 현실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메타버스



정인성 | 인천담방초등학교 교사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많이 줄어든 요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심지어 새로운 친구를 스마트폰으로 사귄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기기로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정보를 습득하고, 우리 어른들이 몰랐던 새로운 세계에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성장을 도와주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학생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재미를 느끼며,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많은 매체에서 소개되고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을 넘어 구현된 가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메타버스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학생들은 벌써 많은 시간에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목)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정 동부발명교육센터 운영교인 인천담방초등학교(교장 김정민)는 발명기초반 개강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인천담방초등학교 동부발명교육센터는 창의발명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초등학교에서는 발명기초반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발명분야에 흥미와 창의적 잠재력을 갖춘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1997년에 개소하였으며, 2007년 발명교실현대화 사업으로 다양한 발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발명교육 접근이 어려운 동부 관내 초등학교 및 지역 이동센터의 많은 학생들의 꿈을 키웠습니다. 특히, 올해 개강식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개강식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가상공간에서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아바타를 통해 소통하고,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좀 더 현실 세계와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천담방초등학교 김정민 교장은 “최신 발명교육 트렌드에 맞게 발명 이론과 공작 활동과 더불어 SW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방학 특강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직접 메타버스 공간을 제작하고 체험하여 21세기를 이끌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메타버스는 학교 행사뿐만 아니라 일상 수업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담방초등학교 학생들은 코로나19로 등교가 힘들었던 올해 초 메타버스 공간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줄이나 e학습터 등 단순히 선생님이 안내해준 화면을 보며 학습을 하는 활동에서 벗어나 학생들과 함께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활동하며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 자료를 확인하고, 친구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다른 화상수업 플랫폼과 동일하게 선생님의 모습, 친구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음성 또는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교실 공간과 유사하게 공간을 꾸며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재미있고, 수업이 지루하지 않아서 좋아요. 특히 저랑 비슷하게 아바타를 꾸미고, 친구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어요.”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메타버스 수업을 준비한 인천담방초등학교 정인성선생님은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학생들이 실제 수업과 동일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타버스 공간을 제작하고 수업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것이 힘들지만 공간을 제작하면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원격수업에 자주 늦던 한 학생은 새벽부터 메타버스 공간에 접속하여 다음날 수업 활동을 미리 확인하기도 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으니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졌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껏 우리가 겪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랍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에게는 메타버스라는 낯선 공간이 학생들에게는 꿈을 키우며, 성장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낯선 공간 더 이상 상상만하지 말고 체험해보세요.

인하공업전문대학과 함께하는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정승현 | 인하공업전문대학 평생교육사

성인기 전환 시점에 요구되는 장애학생의 사회 간접경험 필요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학령기 시작으로부터 십여년 이상 다양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성장하고 있으며, 공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후기 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은 본격적으로 사회에서의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며, 그 계기를 통해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 청소년의 성인기 전환 성과는 어느 지역, 상황을 막론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장애 청소년이 성인기로의 전환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 낮은 성인기 전환 성과는 이들의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사회가 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위해서는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를 갖추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대학기관이 장애 청소년의 학습 욕구 해소를 위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하공업전문대학은 성인기 전환을 앞둔 시점의 장애 청소년들에게 진로선택 및 사회간접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장애학생 대학전공 학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장애 청소년이 올바른 직업의식 및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공학과 체험 프로그램의 목표 및 방향

장애 청소년들이 평소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여러 전공 분야의 체험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가져야 할 소양 및 직업 의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회 진출준비 즉, 진로선택에 앞서 다양한 직업유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진로선택을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직무훈련의 참여가 요구되며, 본인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 하는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공학과 체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는 장애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군의 체험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학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실내건축학과(3D 프린팅 실습, 목공예실습), 항공운항과(서비스 마인드실습, 이미지 메이킹실습), 항공경영학과(여객 발권 및 수속 실습), 호텔경영학과(바리스타 실습, 생활 매너 습득)의 체험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 수립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하공업전문대학은 장애 청소년의 독립적인 성인기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상호 기관간의 신뢰 아래 지속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닌 학습 결과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본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가 장애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 동안 교실 속 대화, 어떠셨어요?

김연민 | 당산초등학교 교사

3월 첫 만남을 지나
1학기가 지나고 나면,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잘 알게 되고,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러면서, 처음 둘다리 두드리듯 한 걸음씩
가졌던 마음과 의도와 달리 언어와 태도가
조금은 거칠어지고, 무뎈진다.
많은 교사들이 5월에 접어들면서
교우관계나 학교폭력 문제를 경험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1년 내내 같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모두가 내 마음 같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 속 대화를 유지해줄
기술적 측면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화에도 권력관계가 존재한다.

좋은 대화란, 대등한 두 관계가 서로 상호보완하며 소통하는 것이다. 한 쪽이 강하면 대화는 일방적인 강요가 된다. 교실 속 대화는 일반적으로 그저 웃고 즐기는 대화를 넘어 교사에게는 교육과정과 생활지도, 학생들에게는 교우관계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행위이다. 대화하는 순간만큼은 양 측의 관계가 평등함이 중요하다. 왜 학생과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학생들은 아직 미숙하고, 지도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일까? 직장의 상사, 학교의 교장, 교감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은가를 되짚어보자. 그러면 우리 교실에 필요한 대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나이와 경험에 상관없이 우리는 존중받고 싶다. 그러나 교실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교사의 도덕 강의, 잔소리와 훈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생은 수업 중 다수나, 교사 앞에서 위축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 이런 것을 대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 동안 필자가 경험한 대화의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었다.

- 실제로 사과의 대상은 교사가 아니었는데, 학생들은 교사에게 먼저 사과한다.
- 개인의 잘못을 따지다가,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결국 전체 훈계로 번져나간다.
- 시간이 없어 문제를 딱 잘라 해결해 주다 보니, 매일이 민원 천국이다.
- 학생들이 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 해도, 소통에 서툴러 흐지부지 된다.

이런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과의 소통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게 되고, 대충 마무리 지으려는 마음이 돌아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교실 속 대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왜 그랬어?’를 버리면 대화가 달라진다.

학생: 선생님, 죄송합니다.

교사: 그러게, 죄송할 일을 왜 했어? 왜 그랬어?

학생: 장난친다고 살짝 발을 걸었는데, 넘어질 줄 몰랐어요.

교사: 장난? 장난으로라도 발 걸면 넘어진다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학생: 죄송합니다...

교사: 입장 바꿔서 네가 걸려넘어졌다고 생각해봐. 기분이 어떻게?

학생: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교사: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학생: 사과하겠습니다.

필자가 해온 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방식은 이런 양상이었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적당히 비판하고, 역지사지 후 사과를 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문제는 금방 또 일어났다. 그 때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해 온 것이 성장과 변화를 위한 상담이 아닌, 학생의 자존감을 다치게 하는 힐난은 아니었을까 깨닫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왜 그랬어?’의 문제가 크게 다가왔다. 교사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왜’라는 질문을 통해 그 이유를 듣고 논파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가끔은 그 ‘왜’가 대화 상대방의 자존감을 몽개거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다.

‘왜 그랬어?’라는 질문에

학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교사는 답답해서 부정적인 측면의 행동으로 단정 한다. “장난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냐?”
학생이 조리 있게 대답하면,	교사는 행동의 정당성을 알고도 했다는 점에 대해 더 쾌ση하게 생각한다. “그걸 다 알면서 그랬다는 거니?”
학생이 거짓말을 하면,	이제는 문제의 초점이 ‘교사에게 한 거짓말’이 불씨가 되어 대화는 건잡을 수 없이 부정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대화의 원칙을 정해 그에 맞게 교사와 학생 모두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생님과 대화할 때,

1.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2. 나는 언제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3. 선생님은 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대화 할 때,

1. 지금 대화하고 싶은 마음인지 묻습니다.
2. 왜 그랬는지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3. 판단하지 않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찾아 줍니다.

그리고 필자는 학생들과 대화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딱 두 가지만 되새기며 대화에 참여했다.

‘왜’라는 질문을 첫 문장으로 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의 최종 판단을 내가 내리지 않다. 물론, 학생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교사는 대안을 제시하고 학생이 선택하여 스스로가 올바른 선택을 선택했다고 믿게 만든다.

위의 생각을 반영하여 대화를 연습해보자.

학생: 선생님, 죄송합니다.

교사: 선생님은 괜찮아. 아까 있었던 일로 대화를 하고 싶은 데,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니? 그럴 기분이야?

학생: 네, 괜찮습니다.

교사: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줄래?

학생: 친구가 책상 옆에 지나가 길래, 발을 걸어서 친구가 넘어졌어요.

교사: 그랬구나, 넘어진 친구는 많이 아팠을 거 같은데?

학생: 네, 올면서 저한테 화를 냈어요.

교사: 일부러 그런 거야? 혹시 둘 사이에 다른 문제는 없었니?

학생: 아니요, 정말 장난이었어요.

교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학생: 음...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교사: 그런데, 사과를 쉽게 안받아주면 어쩌지?

학생: 음... 그러면 어찌죠?

교사: 우선,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몇 번 더해보자, 만약 친구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 때는 선생님이 도와줄게.

이런 방식의 접근의 좋은 점은 교사가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며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학생의 ‘왜 그랬는지’에 집착하면 교사의 감정도 좋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를 이미 벌여졌고, 문제를 해결

그 동안 교실 속 대화, 어떠셨어요?



하는 동시에 교사로부터 존중을 받는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고자질 보다 ‘대화’를 먼저 나누게 하자.

위와 같은 방식의 대화가 빈번히 일어나고, 정착되면 학생들이 교사를 통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훈련이 되기도 한다. “선생님, 재가 저를 치고 갔어요.” “지우개를 허락 없이 가져갔어요.” “저 보고 놀렸어요.” 등 절차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 일일이 시간을 들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학생들의 다짜고짜 민원은 교사와의 대화에서 해결 대상이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들이 무턱대고 교사에게 ‘신고’하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보자.

학생B: A가 저를 밀치고 갔어요.”

교사: 지금 B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무엇을 원해서인가요? A가 선생님한테 혼나면 좋겠어요?

(‘네’라고 답한 경우) 생각해 보면 잘못은 A가 B한테 했는데, 선생님한테 A가 혼나고 나면, A가 B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까요?

(‘아니요’라고 답한 경우) 그럼 정말 원하는 건 뭔가요?

“왜 그랬는지 알고 싶고, 사과도 받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A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갈등 중재 후)

“다음에는 선생님에게 오기 전에 먼저 친구에게 원하는 걸 이야기해 보세요. 만약 친구의 답이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 선생님에게 오면 도와줄게요.”

이런 방식의 접근은 학생이 스스로 문제의 당사자와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습을 통해 학생들은 의사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도 한다. 교사의 입과 권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화 방식에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간다. 그렇기에 항상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어느 날, ‘교사의 축’으로 ‘아, 이 순간만큼은 이런 대화법으로 접근해야겠다’라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때 이런 방식의 대화를 딱 한번만 성공시킨다면 이후 학생과의 대화와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대화에 성공한 교사 스스로도 자존감을 얻고, 민주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웹툰 힘찬자람툰

인천시교육청 SNS 채널 소개

소통협력담당관





학부모와 소통하는 고민 상담만화

1

한글공부
집에서
함께 하기

소통협력담당관



2





학부모와 소통하는 고민 상담만화

3

한글공부
집에서
함께 하기

소통협력담당관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제증명 민원 우편 발급 서비스 전면 확대 실시!

방문이 필요없는
비대면 교육제증명 발급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 상 민 원 교육제증명 **전체**

서비스절차 홈페이지 신청
(전자민원 → 제증명발급 예약·우편신청)
→ 빠른등기우편 수령

서비스요금 **무료**



인천시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 이용 안내



- 상담대상 : 중 · 고등학생 및 학부모
- 상담장소 : 인천시교육청 신관 1층 진로진학상담센터
- 상담예약 :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홈페이지

상담운영시간 🕒	운영기간	요일	운영시간
	2022. 3.~12.	월~금 토	09:00~18:00 09:00~17:00
	2022. 3.~12.	월~금	09:00~18:00

- 상담예약방법 📝
- 전화예약 : 032-420-8475
 - 온라인예약 :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홈페이지 접속(<https://cyberjinro.ice.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진로진학 → 진로진학상담 → 마중물진학상담 → 상담 예약
 - 상담교사 :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진로진학담당교사
 - 상담은 1회 최대 60분 이내

위치안내



인천교육소식지 29호
여름 이벤트

소식지 여름 이벤트

2022년 6월 새로운 평화교육이 시작됩니다.

학생,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강화군 교동도에서 체험과 실천 중심 평화교육을 제공하는
인천시교육청 평화교육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2.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3.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4.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정답(힌트 : 인천교육소식지 29호 14p)을 찾아 모아품에 정답을 입력해 주세요.

응모기간 : 2022.7.4.(월) ~ 2022.7.15.(금) 17:00

참여대상 : 인천시민 누구나

응모방법 : 1. 우리교육청 카톡채널 추가/유튜브 구독

2. 우리교육청 인스타그램 팔로우

3. 우리교육청 블로그 카톡채널 추가 이미지 댓글 모아품 작성(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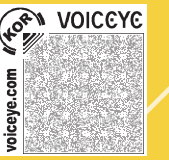
발표일자 : 2022.7.21.(목)

이벤트상품 : 정답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배스킨라빈스교환권(10,000원권) 지급

이벤트 바로가기



모아품 바로가기



신속하게 인천교육소식을 만나보세요!

STEP 01



카카오톡 실행

STEP 02



인천시교육청 검색

STEP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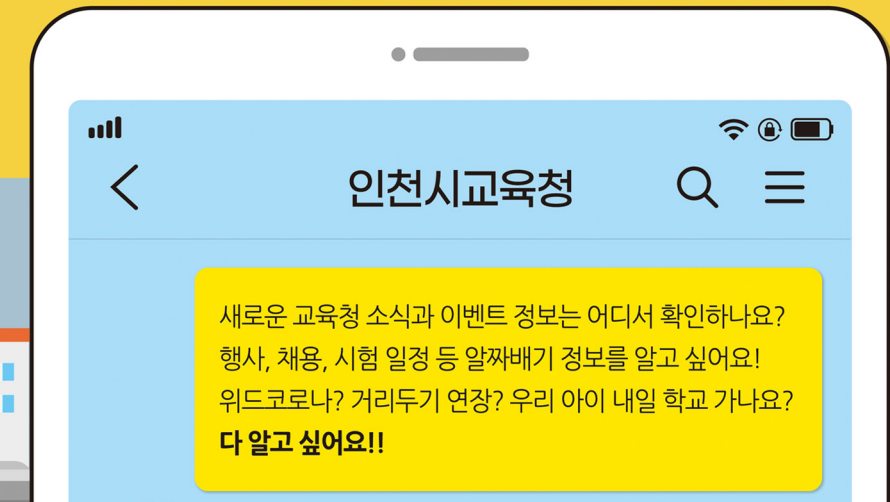


채널 추가하기



QR코드

“ 카카오톡 채널로 인천교육정보를 만나보세요. ”



인천시교육청

알림톡 도착

kakao

모든 소식을
인천시교육청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날 수 있어요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포스터 공모전

초등학교



최우수_인천도림초 하유나



우수_인천만월초 황예담



우수_인천중산초 이채원

중학교



최우수_인성여중 배연두



우수_구월여중 윤예은



우수_만월중 강건

고등학교



최우수_신현고 신민지



우수_가정고 민예진



우수_인천예일고 정예현